

# 인디 영화계의 거장을 만난다

### 광주극장 29일까지 '집 자무쉬 특별전'



집 자무쉬

대표작 '천국보다 낯선'·'커피와 담배' 등 7편 상영

25일 '데드맨' 상영 뒤 정한석 평론가와 '씨네토크'

미국 인디 영화계의 거장 집 자무쉬 감독의 영화를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시네마테크는 23일부터 29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집 자무쉬 특별전'을 개최한다. 집 자무쉬의 영화는 시적인 대사, 스타일리시한 영상미, 개성 넘치는 사운드트랙으로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천국보다 낯선', '커피와 담배' 등 모두 7편을 만날 수 있다. 25일 오후 3시에는 '데드맨' 상영 후 영화 평론가 정한석씨와 함께하는 '씨네토크'도 마련돼 있다.

▲영원한 휴가(1980)

질리 파커를 좋아하는 엘리 파커는 뉴욕 뒷골목의 떠돌이 청년.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는 맨해튼의 낡은 아파트와 한적한 셋방을 전전하다 남의 집에 들어가 춤을 추거나, 망상

에 잠기고, 낯선 사람들을 지나쳐가며 일상을 보낸다.

▲천국보다 낯선(1984)

청춘영화의 표상으로 불리는 집 자무쉬 감독의 대표작으로 흑백 영상, 권태로운 정춘, 황량한 미국의 풍경을 담아냈다. 1984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카메라상을,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황금표범상을 수상했다. 윌리, 에디, 에바 세 명의 청춘이 여행을 떠난다. 뉴욕에서 클리블랜드로, 그리고 그들이 천국이라고 믿었던 플로리다로. 길은 끝없이 이어지고 어디를 가든 같은 풍경, 같은 사람들인 세상에 대해 세 사람은 질문을 던지는데...

▲다운 바이 로(1986)

'인생은 아름다워'의 배우 로베르토 베니니가 세계 관객들에게 이름을 알린 영화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도 없이 공상을 즐기는 라디오 DJ 제크와 삼류건달 짝은 하루하루 건들대며 살다가 결국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예전처럼 반동대머리 시간만 때우던 그들의 방에 로베르토가 합류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미스터리 트레인(1989)

엘비스 프레슬리를 찾아 멤피스로 온 일본인 커플 준과 미츠코, 비행기 사고로 하룻밤을 멤피스에서 보내야 하는 이탈리아 여인 루이사, 엘비스 프레슬리를 닮았다는 조롱을 받고 술집에 사고를 친 자니, 그리고 그들이 묵는 모텔에 출몰하는 엘비스 프레슬리 유령 등이 펼쳐지는 독특한 코미디 영화다. 일본 10대 스타 쿠도 유키, 나가세 마사토시, 유키 쿠도, 스티브 부세미 등이 출연한다.

▲지상의 밤(1991)

하룻밤, 같은 시각에 L.A, 뉴욕, 파리, 로마, 헬싱키 등 5개 도시 택시 안에서 기사와 승객이 벌이는 해프닝과 대화를 나열한 유니버시티 영화다. L.A에서는 나이트 연예인 매니저와 나이 어린 소녀 기사가 만나고, 뉴욕에서는 운전이 미숙한 이민자 기사와 흑인 손님이 만난다. 워노나 라이다, 마티 펠론과, 베아트릭제 달 등 화려한 캐

스팅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데드 맨(1995)

조니 뎀, 로버트 미첨, 이기 팜, 빌리 밥 손튼 등 출연진들이 인상적인 영화로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와 철학이 바탕에 깔린 작품이다.

부모를 잃은 회사원 윌리엄 블레이크는 자신과 동명이인인 그 시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 낙담한 채 마을을 배회하다 한 여자를 만나 함께 밤을 보내던 블레이크는 여자의 옛 애인과 결투를 벌이다 총상을 입는다.

▲커피와 담배(2003)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11가지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무엇보다 로베르토 베니니, 스티브 쿨건, 케이트 블란쳇, 이기 팜과 톰 웨이즈, 록밴드 화이트 스트라입스, 그리고 빌 머레이 등 화려한 출연진이 눈길을 끈다.

시간표는 홈페이지(cafe.naver.com/cinomagwangju) 참조.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올라 비올라 사운드

3월 '올라 비올라 사운드'

4월 '동물원의 포크&락 콘서트'

5월 '오페라, 팝페라, 뽕페라'

⋮

##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광주문예회관 29일 첫 공연

지난해 광주문예회관이 처음 진행한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첼리스트 송영훈 등이 관객들과 호흡하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줬고 마지막 공연이었던 '하루키, 미야자키 히야를 만나다'는 일찌감치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는 올해도 계속된다. 첫 스타트는 '올라 비올라 사운드'가 꼽는다. 2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직중인 오순화 교수가 이끄는 '올라 비올라 사운드'는 세계 유일의 비올라 앙상블로 이번 공연에는 15명의 연주자가 참여한다.

지난 1999년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단원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올라 비올라 사운드'는 정통 클래식 뿐 아니라 팝송 등도 편곡해 연주한다. '올라(Hola)'는 스페인어로 안녕이라는 뜻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비발디의 '사계' 중 '봄'과 '여름'(협연 바이올리니스트 박신영)을 들려주며 '사계'와 비틀즈의 명곡들을 바로크 스타일로 함께 연주하는 파격적인 무대도 선보인다.

4월(26일)에는 '동물원의 포크&락 콘서트'가 열린다. 1988년 데뷔 후 김리애와 함께 하는 '이승훈의 와인에 창기, 김광석 등과 함께 했던 '동물원'은 현재 유준열·박기영·배영길 3인조로 재편성 활동중이다. 공연 레퍼토리는 '헤화동', '시청 앞 지하철 역에서', '말하지 못한 내사랑' 등이다.

이어 5월 24일에는 팜페라 그룹 '투루바'와 함께하는 '오페라, 팝페라, 뽕페라'가 대기중이며 6월 28일에는 제



박주원

즈 밴드 '프렐루드'의 색소폰 주자 리차드 로와 피아니스트 고희안이 함께 하는 '렉처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다.

그밖에 7명의 솔리스트로 구성된 '멀티앙상블 뮤'의 '시네마 파라다이스'(7월 26일), 신들린 핑거링의 질시 기타리스트로 꼽히는 '박주원의 기타 콘서트-질시 시네마'(9월 27일), 소를리애와 함께 하는 '이승훈의 와인에 빠진 클래식'(10월 25일)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회원 30%), 청소년 1만원(회원 50%), 10만원(2명)으로 모든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연간 회원권도 판매한다. 문의 062-613-82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당신에게 사랑을 드립니다'

25일 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운영문) 정기 연주회가 오는 25일 오후 6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사랑의 네 가지 진심-러브 스토리'로 자신을 향한 사랑, 친구와의 우정, 가족 간의 사랑,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 등 사랑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친숙한 노래로 풀어낸다.

연주 레퍼토리는 '4월의 한 봄날에', '꼭 안아 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름다운 세상', '꿈꾸지 않으면',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등이다.

또 그레이스 앙상블이 특별출연, '플라잉', '라스트 카니발'을 들려주며 박은주씨가 소년소녀합창단의 음악속 이야기를 노래와 빛으로 표현하는 '샌드아트'를 선보인다. 그밖에 관객들이 직접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감동 이벤트도 함께 펼쳐진다. 전석 1만원(학생 50%할인). 문의 062-415-56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봉주 前 국회의원

전여옥 작가

남희석 방송인

진중권 교수

안형환 前 국회의원

# 외부자들

OUTSIDER

매주 화요일 밤 11시

CHANNEL A